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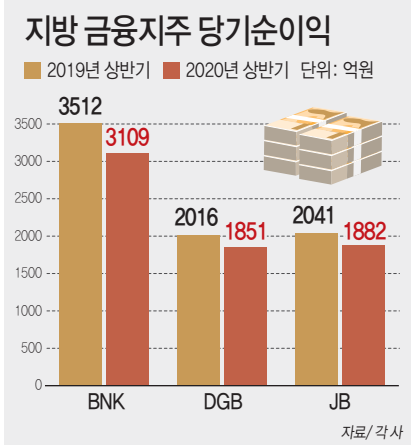
증권·캐피탈 등 '非은행' 약진에 코로나 넘어선 지방금융

지방 금융지주사 상반기 실적

BNK금융지주
3109억 순익, 비은행부문 18% ↑

DGB금융지주
1851억 순익, 전년과 유사한 실적

JB금융지주
1882억 순익, 전년보다 4.7% 증가



지방 금융지주사의 상반기 실적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도 선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BNK금융지주, DGB금융지주, JB금융지주의 상반기 순이익은 작년 동기 대비 줄어 들었다. 하지만 총당금 적립 등을 감안하면 지난해와 비슷한 실적을 거뒀다는 평가다.

DGB금융지주는 전년 동기에 비해 8.2% 줄어든 1851억원의 순이익을 거뒀다. 코로나19 관련 총당금 전입액 236억원을 감안하면 2016억원을 기록한 지난해 동기와 유사한 실적을 달성했다. BNK금융지주는 3109억원으로 가장 많은 순이익을 올렸지만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11.5% 감소했다.

두 회사 모두 비은행 계열사의 약진이 실적하락 방어 역할을 했다.

DGB금융그룹 내 비은행 부문의 약진이 눈에 띈다. 상반기에 비은행 계열사에서 하이투자증권 481억원, DGB생명 225억원, DGB캐피탈 180억원 등 각각 전년 동기 대비 각각 56.7%, 48.0%, 22.4% 증가했다.

비은행권과는 대조적으로 대구은행에서는 상반기 순이익 1388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보다 22.1% 하락했지만 코로나19 여파에도 선방했다. 원화대출금은 전년 말 대비 6.5% 증가했고, 고정이하여신비율(NPL)과 연체율도 0.74%, 0.52%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보다 각각

0.14%포인트, 0.01%포인트 낮췄다.

DGB금융지주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금융그룹으로서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며 자본적정성과 건전성 관리에 더욱 집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NK금융지주 역시 은행부문의 수익성은 악화됐지만 비은행 부문의 실적으로 상당 부분 만회했다. 상반기에 BNK캐피탈 448억원, BNK투자증권 225억원 등 총 780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하며 비은행부문 순이익을 전년 동기 대비 18%가량 끌어 올렸다. 255억원 규모를 추가 총당금으로 적립했지만 대손비용률은 오히려 0.44%로 하락했다. 또 NPL 비율은 2분기 1.05%를 기록하면서 지난 분기보다 0.03%포인트 개선됐다.

JB금융지주도 상반기에 7.8% 감소한 1882억원의 순이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JB금융지주 관계자는 “상반기 순이익에서 코로나19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과 같은 일회성 요인을 제거한다면 오히려 지난해 동기보다 4.7%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포스트코로나 다변화와 같은 노력을 통해 다음 분기를 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영석 기자 ysl@metroseoul.co.kr

소상공인정책자금 비대면 금융서비스 제공

소진공-나이스평가정보 업무협약 체결심사 모형 개편 등 협업 추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나이스평가정보와 손잡고 소상공인 정책자금 비대면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소진공은 나이스평가정보와 지난달 31일 ‘소상공인 정책자금 비대면 금융서비스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양측은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비대면으로 지원하기 위해 온라인 서류 제출 및 자동화 대출을 통한 비대면 금융 시스템을 구축하고, 소상공인 대출심사 평가모형 전면 개편과 신규모형 개발 등의 협업사업을 추진한다. 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두 기관이 함께 낸다. 소상공인들은 소진공이 직접 대출하



조보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오른쪽)이 나이스평가정보 신회부 대표와 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소진공

는 정책자금을 신청하기 위해선 관련 서류를 갖추고 소진공의 전국 66개 지역센터에 직접 방문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협약을 계기로 온라인으로도 대출신청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김승호 기자 bada@

가상 캐릭터 재테크, 전형적인 ‘폭탄 돌리기’

금감원 Q&A

유사금융 플랫폼 재테크 주의

Q.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보다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재테크 수단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동물, 과일 등 인터넷상 가상 캐릭터를 회원 간에 사고 팔아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회원 모집글을 접하게 됐어요. 이런 것도 투자수단이 될 수 있나요?

A. 최근 가상 캐릭터를 거래해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등 광고로 모집하는 재테크 상품들은 ‘유사금융 플랫폼 재테크 사기’일 가능성이 큼니다. 해당 업체들은 P2P, 전자상거래 플랫폼 등의 용어를 사용하며 마치 혁신 재테크 기법을 활용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있으나, 사실은 수익원이 전혀 없는 단단계 금융사기인 경우가 많습니다.

유사금융플랫폼 운영자들은 가상

의 캐릭터 등을 만들어 이를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고 거래에 따른 수수료 등을 수취합니다. 또 신규 구매자가 지속적으로 유입되어야만 거래가 원활히 이뤄지며 신규 구매자가 유입되지 않은 경우 마지막 구매자의 손해가 발생하는 전형적인 ‘폭탄 돌리기’ 형태입니다.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시중금리보다 훨씬 높은 수익을 보장해 준다면, 신개념 또는 혁신 재테크라는 말에 현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나만 아는 정보’라며 접근하는 지인의 고수익 투자권유에 의심 없이 따를 경우 손쉽게 단단계 투자사기의 희생양이 될 수 있습니다. 업체가 투자를 모집해 오면 모집액의 일정 비율을 수당으로 지급하겠다고 제안하는 경우 돌려막기형 단단계 사기 가능성이 크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영석 기자

김광수 “금융 변화 직시해 미래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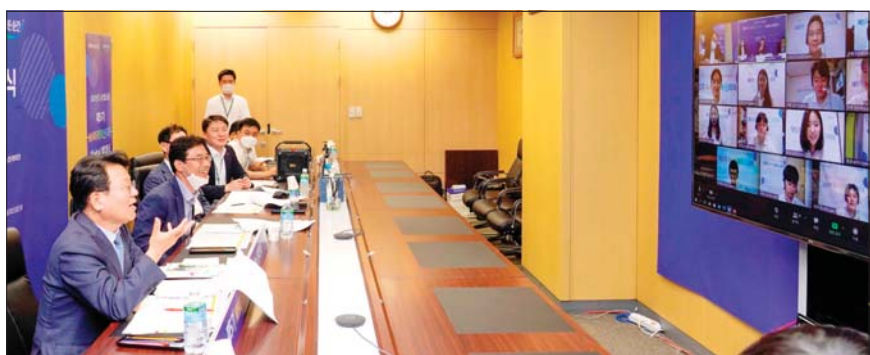
(NH농협금융 회장)

NH농협금융 미래혁신리더 발대식 화상회의 통해 미래혁신 공유·토론

NH농협금융지주는 농협금융의 미래와 변화·혁신을 주도할 차세대 리더 육성을 목표로 조직한 ‘NH미래혁신리더’의 5기 발대식을 진행했다. NH미래혁신리더는 2016년부터 매년 은행, 보험, 증권 등 계열사의 젊은 직원 중심으로 구성해 운영하는 혁신조직이다.

NH농협금융지주는 지난달 31일 서울 중구 농협금융 본사 화상회의실에서 2020년도 5기 NH미래혁신리더 디지털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발대식에는 김광수 회장과 각 부문 부사장이 참석했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화상면접을 통해 우수인재 16명을 선발했다. 또 발대식도 화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해 비대면으로 진행했다. 이날 김광수 회



지난달 31일, 서울 중구 농협금융 본사 화상회의실에서 열린 제5기 ‘NH미래혁신리더 발대식’에서 농협금융 김광수 회장(왼쪽 첫번째)이 화상회의 시스템에 접속한 혁신리더들에게 당부 말을 하고 있다. /NH농협금융지주

장과 전국 각지에서 선발된 혁신리더들은 온라인으로 접속해 농협금융의 미래와 혁신에 대한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나눴다.

김 회장은 이날 발대식에서 혁신리더에게 “여러분들의 혁신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패기가 농협금융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또 사전 배포한 추천 도서 ‘아마존뱅크가 온

다’에 대해 언급하며 “지금까지 알고 있던 금융을 잊고 미래를 직시해 변화에 빠르게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NH농협금융지주 관계자는 “이번에 선발된 5기 NH미래혁신리더는 이날 발대식을 시작으로 옴니채널(대면·비대면) 방식을 통한 체계적인 혁신 교육을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영석 기자

5월 기점 카드승인금액·전수 증가세 전환

여신금융협, 2분기 카드승인실적 발표

2분기 카드승인실적이 전년 동기보다 증가해 민간소비 회복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다만 오프라인 중심의 소매업, 서비스업에서 매출 감소가 이어지면서 카드승인실적 증가를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신금융협회가 2일 발표한 ‘2020년 2분기 카드승인실적 분석’에 따르면 지난 2분기 전체카드 승인금액 및 승인건

수는 각각 222조5000억원, 56억1000만 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9%, 1.8% 증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된 5월을 기점으로 카드승인금액이 증가세로 전환한 것이다. 전체카드 승인 금액은 4월에는 지난해보다 승인금액이 5.6% 감소했지만 5월, 6월에 전년 동기 대비 각각 6.8%, 11% 증가했다.

분야별로 도매·소매업 분야에서 온라인 구매 수요 증가, 자동차 판매 증가 등의 요인으로 지난해 2분기 보다 카드 승인 실적이 16.1% 증가했다.

반면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업, 교육서비스업 등에서 카드승인실적 감소세가 이어졌다. 코로나19로 인해 정부가 이동 자제를 권고함에 따라 운수업 카드승인실적은 전년 동기 보다 64.0% 급감했다.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에서 카드실적이 각각 6.8%, 8.1%, 43.2% 감소했다.

/이영석 기자

“저금리 지속시 공모주 수요 더 높아질 것”

>> 1면 ‘넘쳐나는 유동성...’서 계속

지난달 28일 일반청약을 받은 미용 의료기기 업체 ‘이루다’는 3040대 1로 사상 최고 청약경쟁률을 기록했고, 다음날인 29일 전문의약품 제조 기업 ‘한국과마’는 2035대 1의 경쟁률로 역대 2위에 이름을 올렸다. 티에스아이, 엘이티가 뒤를 이었다.

비상장주식 거래플랫폼인 K-OTC 시장도 최근 활황이다. 7월 한 달간 K-OTC 거래대금은 1265억원을 기록했다. 지난 1월(896억원)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늘었다. IPO전에 미리 주식을 사 놓으려는 투자자가 있다는 방증이다.

K-OTC시장에서 7월 한 달간 거래

대금 1위 종목은 알츠하이머 치료제 개발사인 아리바이오로 약 618억원의 거래대금을 기록했다. 해당기간 주가는 145.48% 급등했다. 다음은 코스닥 재상장을 추진 중인 바이오기업 오상헬스케어(309억원), 전통제 개발 바이오 기업 비보존(287억원) 순이었다. 해당 기업 모두 코스닥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연구원은 “주식시장에 이미 상장된 종목을 통해 수익을 기대하기 보다는 공모주 청약에 참여해 수익을 챙기려는 수요가 많아졌다”면서 “저금리 지속과 양적완화 추세가 이어질 경우 공모주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손엄지 기자 sonumji301@